

# 居昌 黃山마을 전통주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onal Process of Traditional House in Hwangsan Village at Geochang

김 화 봉\*\*, 김 세 환\*\*\*  
Hwa-Bong Kim, Se-Hwan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ormational process of traditional house in old village that is the base of development on rural area.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to use the family genealogy of the clan society village in the analysis of building times, and constructed with investigation by the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described as follows.

1. At the first period of settlement in the middle time of 18C, the small relative family was located at nearby of each other. They were divided three group. The first entered man is B-group. 2. At the period of 19C, the family was enlarged by the descendants. But at that time, the house was constructed by small type. And some tiled roof houses were built by A-group part at under area of the village. And the construction of village boundary was nearly completed. 3. At the early period of 20C, the great houses were constructed by C-group part at the upper area of the village. 4. At the late period of 20C, there were not changed largely. But small change was occurred by the divided of site. Except two house, every houses were changed to tiled roof house. The residents have continued the strong preservation mind of environment for 300 years.

The family genealogy was very useful to analyze the formational process of traditional house in the clan society village.

주제어 : 씨족마을, 형성과정, 족보, 고증

Keywords : the clan society village, formational process, family genealogy, investig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 주거건축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환경개선 대상으로 그 낙후성을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1C 건축의 방향으로 친환경 건축이 주목 받게 되자, 한국농촌의 전통 주거건축이 한국적 정서에 맞는 친환경 건축으로 위상을 재확립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농촌 관광의 주요 시설로서 전통 주거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년전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황산마을과 같은 전통마을<sup>1)</sup>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마을이 관광을 목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 그 건축적 가치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보편적인 환경의 평준화를 위해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학술적 자료를 확립하기 위하여,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통주거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통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확립하여, 마을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주거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전통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주거의 형성과정에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건축연대를 파악해야 하는데, 기록 자료가 적은 대부분의 주거건축에서는 가장 정확한 편년을 상량(上樑)의 묵서(墨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묵서는 대부분 반가(班家)에만 남아있을 뿐이며, 그나마 오랜 세월의 변화로 인하여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후대의 보수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새 부재로 바뀌어 없어진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연대를 모두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연대는 주로 거주자의 고증에 의해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마을은 대부분 씨족(氏族)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한 씨족이 지배적으로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중요한 기록 유산으로 족보(族譜)<sup>2)</sup>가 남아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

\* 본 논문은 2009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의 기성회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 세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공학석사

1)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마을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들 수 있고, 최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옛담장”이 아름다운 마을로 ‘황산마을’을 비롯한 17개 마을을 지정하였다.

2) 족보를 통한 연구 사례로는 박명덕의 「영남지방 동족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2.2)와 김화봉의 「풍산김씨마을 뜰집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안동 오미마을과 봉화 오록마을의 족보를 바탕으로-」

석하는 근거자료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적 자료인 족보를 통하여 이러한 마을의 전통주거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확한 건축 연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문헌자료로 씨족마을의 족보를 활용하여 전통 주거의 편년을 가능한 한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족보는 시간적 근거를 제공하는 가장 명확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주인의 이동이나 변동에 의한 근거를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는 주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구전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추론은 하지 않았으며, 고증<sup>3)</sup>된 근거만을 통하여 주거의 형성과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구(<그림 1>참조)의 황산마을로서 거창신씨(居昌愼氏) 산정공파(山亭公派)가 300여년을 대대로 세거하는 곳이며, 현재 존재하는 23가옥이 모두 거창신씨 일가(一家)가 살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마을은 족보를 통한 씨족의 변천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주거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황산마을은 등록문화재 제259호 ‘거창 황산마을 옛 담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을의 전통가옥 중에는 지방민속자료 제17호 ‘신씨고가’(신위범택)가 있다. 황산마을은 전통주거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지만, 전체적인 조사 연구<sup>4)</sup>는 최근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 선행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인데, 선행연구에서는 공간구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치나 평면의 분석에 따른 시대별 유형의 개념은 제외하고, 마을의 시대별 형성과정의 특성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조사 및 면담은 2010년 7월과 8월에 진행되었고, 2010년 12월에 보완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산마을을 대상으로 목서의 연도와 족보의 편년에 의한 문헌자료와 주민의 고증에 따른 주거이동의 근거만을 연구에 포함하여 전통주거 형성과정의 시대별 특성을 분석한다.

## 2 황산마을의 형성 배경

### 2.1 자연 환경

거창의 북쪽은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북서쪽의 덕유산(1,614m)과 북동쪽의 가야산(1,430m)이 거창의 배산(背山)을 이루며 남서쪽으로 낮은 산을 형성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는 황강을 만들어 임수(臨水)의 지형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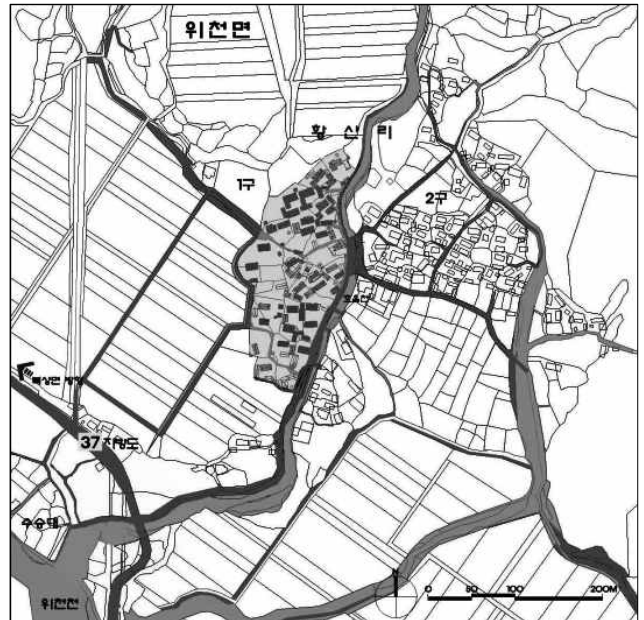


그림 1. 황산마을 위치도(가운데 짙은 부분이 연구대상 지역)

루고 있다. 황산마을이 있는 위천면의 영역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긴 형상인데, 그 중앙에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천이 위천면의 가운데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 거창읍에서 황강과 합류된다.

위천면은 북쪽 호음산(929m)을 주산으로 하여 그 남쪽맥이 능선을 이루는데, 그 사이에서 호음천이 흘러 위천천의 본류와 만나기 직전의 넓은 터전에 황산마을이 있다. 황산마을은 호음천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1구가, 동쪽으로는 2구가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일반적으로 황산마을이라 불리어지는 곳으로, 황산리 2구인 동촌과 구분하여, 1구인 서촌지역이다. 서촌은 다시 마을 중앙의 동서 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누어 상촌과 하촌으로 구분된다. 입향조의 종가인 ‘취한당’이 있는 주거지역은 하촌에 속하고, 지방문화재가 있는 ‘신씨고가’는 상촌에 속한다.

황산마을의 주변은 관광지로 유명한 수승대(搜勝臺), 구연서원(龜淵書院) 등이 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흘러내리는 위천천이 호음산 마을 앞에서 높이 10미터 너비 50㎡의 거북 모양의 큰 바위를 가운데 두고 감돌아서 거북못(龜淵)을 이루는데, 이 바위를 수승대라 한다. 옛날에는 수승대(愁送臺)라 하였고, 백제와 신라 사이의 사신을 전송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1543년에 퇴계 이황 선생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며, 주위 경치가 빼어나게 좋고, 바위에는 ‘퇴계 명명지대·갈천 장구지대·요수장수지대(退溪 命名地臺·葛川 長句地臺·樂水 藏修地臺)’라는 글과, 여러 시인 묵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86년에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을 하고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하였다.”<sup>5)</sup>

(『건축역사연구』, 13권 3호, 2004.09) 등이 있다.

3)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과 면담하였으며, 족보는 주로 황산마을의 신순범씨와 신위범씨가 고증했다.

4) 김세환, 居昌 黃山마을 傳統住居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경남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02

5) 거창군사편찬위원회, 居昌郡史, 거창군, 1997, pp.21~22



표 2. 황산마을 거창신씨의 족보에 의한 연구대상(마지막 이름이 가옥주)의 가옥번호(길은 색은 건축년도가 확인된 가옥) 및 지번

18世	19世	20世	21世	22世	23世	24世	25世	26世	27世	28世	29世	30世	31世	32世	(가옥번호 : 지번)	
權 復亨 (樂水, 1501~1573, 구연서원 향배, 종6품선교랑)	証	景暹 景昇	杼 守恭 益明 (1736生)	性堯 必顯 龍九 (1757生)	炳鶴 宗翊 棋晟	炳股 炳鍾 炳敏 宗杰 琰晟 (1892生)	炳模 炳天 宗孝 其晟	炳雲 宗鎬 益晟 令範 鏞桓	炳烈 宗先 益晟 成紀 鏞澤 (1843生)	宗煥 惠晟 夏晟 宇晟 在範 鏞成	宗鉉 宗基 保晟				A1 : 604-2 A2 : 597 A3 : 483-1 A4 : 600 A5 : 606 A6 : 599 A7 : 605-3 A8 : 482-2 A9 : 599-1 A10 : 601	
			景明 杼 守彝 德明 性恒 必祐 在圭 炳玉 宗英 玟晟 昌範 鏞兌 (就開堂, 1688~1768) 道明(出系) 認明 性純 性全 性眞 必寧 在鶴 炳泚 宗甸 元晟 禮範 鏞根 (호자, (1784-1860, 건축1857) 1752-1830) 性存	必履 必復 在文 式九 在聲 炳常 宗星 洪晟 外範 (1823生) (200년전 건축에 19C말에 이주:가옥주 고증)											B1 : 598 B2 : 605-1 A11 : 610-1	
			景曄 柱 守性 德章 性侃 性憫 性秀 必睦 在碩 炳崙 宗舜 鴻晟 鞠晟 東範 (1764生) (1872~1924, 건축1922)	必鼎 必升 在圭 炳玉 宗英 玟晟 昌範 鏞兌 (사랑채 1808년경 건축:추증, 안채 20C 중반 개축)											C1 : 604-1	
			根 杉 守倫 學明 性協 必股 必周 在順 鍾天 宗柱 宗五 洛晟 洪範 (매입←琿晟)													
			梯 守沈 元明 性穆 必稷 必高 必憲 必式 在五一炳珏 宗大 萬晟 祥晟 薰範 鏞甲 (100년전 건축:가옥주 고증)													C2 : 485 C3 : 609-1 C4 : 487
			復明 性烈 必祖 敦九 炳鐸 宗鑑 一晟 昌範 鳳九 炳章 宗三 道晟 消範 (1734生) (1845生, 건축:고증, 대문1969) (1826生) (1888~1945, 1927건축)													C5 : 490-2 C6 : 488
			必瓚 必鈺 必璜 在獻 炳道 宗極 允晟 寅範 (1799生) (1931건축)													C7 : 481-1 C8 : 486 C9 : 523-2
			景暉 景曾 炳世 宗轍 百晟 琿範 (1854生) (1948건축)													C10 : 487-1

표 3. 황산마을 주거건축의 건축 연대표(○는 入住 혹은 分家 上限 시기, ●는 현재의 건물을 건축한 시기)

초기		중기		후기		연대 가옥
1700	17 50 18	00 (조선후기) 18	50 (조선말기) 19	00 (근대기) 19	50 (현대기) 2000	
	○ . . . . .	. . . . .	. . . . .	. . . ●20C전반건물	.....	A1
				○ . . ●20C전반건물	.....	A2
				○ . . . . .	●20C중반건물	A3
	○ . . . . .	. . . . .	. . . . .	. . ●20C전반건물	.....	A4
					○ . ●1959건축	A5
					○ ●20C중반건물	A6
			○ . . . ●19C	후반건물	.....	A7
			●19C중반건축	. . . . . 이입	.....	A8
					○ ●20C중반건물	A9
					○ ●20C중반건물	A10
		●19C초반건축	. . . . .	이입	.....	A11
	○ 이향 . . . . .	●사랑채건축	.....	.....	.....	B1
	○ . . . . .	. . . . .	●1857건축	.....	.....	B2
	○ . . . . .	. . . . .	. . . . .	. . ●1922건축	.....	C1
				●20C전반건축	.....1980안채개축	C2
	○ . . . . .	. . . . .	. . . . . ●19C	후반건물	.....1969대문건축	C3
			○ . . . . .	. . . ●1927건축	.....	C4
			○ . . . . .	. . . . .	. . . ●1970년대건물	C5
			○ . . . . .	. . . ●1927건축	.....	C6
		○ . . . . .	. . . . .	. . . ●1931건축	70년대사랑채이건	C7
			○ . . . . .	. . . . . ●	1947건축	C8
				○ . . . . . ●	1947건축	C9
			○ . . . . .	. . . . . ●	1948건축	C10

여 취한당이 살고 있던 황산마을로 이주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24世 道明의 경우는 양자로 출계하여 형제간에서 6촌간으로 촌수가 확장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황산마을은 18C 중반부터 후반까지 짧은 시기에 구연서원의 인근에서 거창 신씨의 23世~25世의 일가들이 단시일에 이룩한 소규모의 동족마을이었다.

**3.3 황산마을의 中期(19C) 家口 형성과정**

현재의 주거를 기준으로 족보를 통해 살펴보면 19C에 들어서 황산마을의 가구는 급격히 팽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기 5~6호의 가구에서 최소 9호가 더 늘어난 16호 정도의 가구가 거주하여, 19세기 말에는 18세기 보다 세 배로 증가한 마을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으며, 거의 현재의 구성에 가까운 도로와 마을의 배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4 황산마을의 後期(20C) 家口 형성과정**

20세기에 들어서 황산마을의 가구의 변화보다는 19C에 비하여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구의 변화는 7호 가량 늘어나 20C의 변화가 19C의 변화보다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 내에서 적절한 주거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 밖으로 마을의 영역을 더 팽창시키지 않은 독특한 특징과 함께, 후손들이 타지로의 이주가 많았을 수밖에 없는 근대 도시화의 맥락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황산마을 전통주거의 형성과정**

황산마을의 전통주거는 앞 장에서 3기의 대략적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건축과정의 변화를 읽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건축의 변화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성과정의 분석은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의 형성기인 중기와 후기를 대상으로 분석하되 이를 다시 세분한다. 세분의 기준은 19C 전반(조선후기)과 후반(조선말기), 20C 전반(근대기)과 후반(현대기)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대략 50년 단위로 나누었는데, 이는 이러한 시기가 건축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조선 후기’는 남부지방의 일반적인 조선 후기의 건축적 특성이 드러나며, ‘조선말기’는 부농층 주거에 실학사상이 반영된 시기이며, ‘근대기’는 대한제국에서 한국전쟁까지의 시기로 근대적 특성이 드러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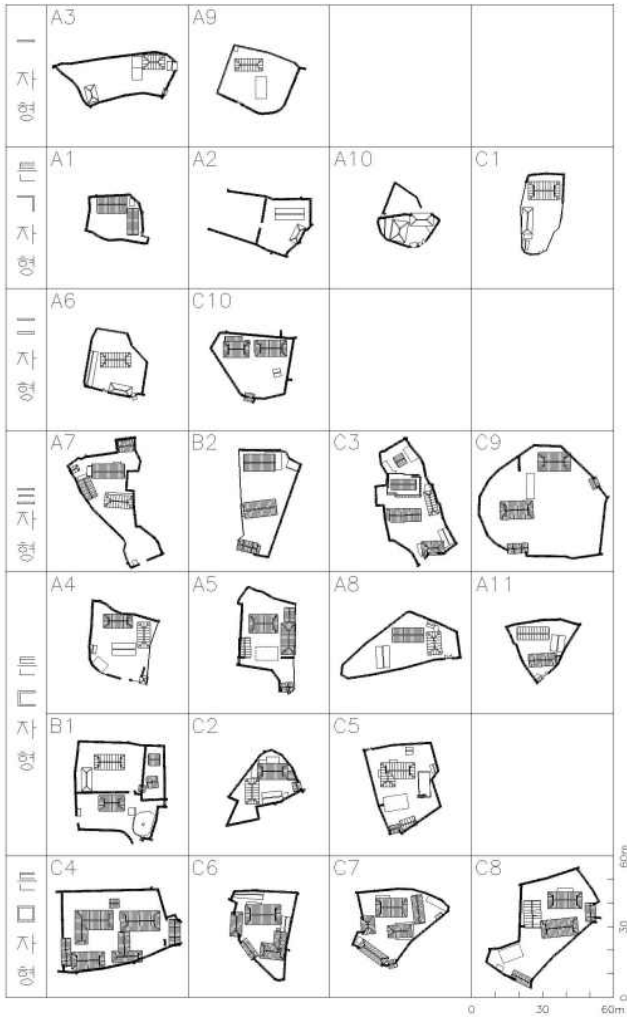


그림 2. 황산마을 전통주거의 채구성에 따른 외부공간의 유형

이며, ‘현대기’는 한국전쟁 이후 지역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시기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유형적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은 채의 구성에 따라 외부공간의 배치유형을 분류한 일반적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선행연구의 분석에 따라 <그림 2><sup>9)</sup>와 같은 외부공간의 유형을 적용하였다. 이는 채의 구성에 따라 一字型, ㄷ字形, 二字型, 三字形, ㄷㄷ字形, ㄷㄷㄷ字形으로 구분한 것이다.

#### 4.1 황산마을 전통주거의 ‘조선 후기’(19C 전반)

<표 3>을 통해 입향조 이후 18C말까지 신씨일가들이 황산마을에 이주할 수 있는 예상 이주가옥은 약 6호이다. 따라서 황산마을의 초기 주거는 거창 신씨 20세 신당(愼諱)의 여섯 아들 중 세 형제의 후손들이 18C 중반 23세 취한당의 정착 이후에 일가들이 이주한 5~6호 정도의 소규모로 구성된 씨족 마을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주거 건축 중 초기의 건물로

파악되는 주거는 없다. 대부분 그렇듯이 조선 후기 영남의 학자들은 벼슬을 높이 하지 못했거나, 높이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는데, 황산마을의 입향조인 “취한당도 벼슬을 천거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sup>10)</sup> 따라서 입향 초기의 황산마을의 주거는 대부분 초가(草家)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대에 현재 남아있는 주거의 형식인 와가(瓦家)로 개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산마을에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구전되는 집은 입향조의 주거 중 사랑채인 ‘취한당’(B1)으로 전해지는데, 19C 초기의 건축으로 파악된다. ‘취한당’의 상량은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 기록되어있지 않았으며, 다른 문헌자료도 파악되지 못했다. 그러나 입향조인 취한당을 1808년에 구연서원에 배향하였고, 현재의 사랑채가 문중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향조를 서원에 배향하면서 입향조의 터전에 문중에서 힘을 모아 사랑채를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즈음에 건축된 것으로 구전되는 신외범가옥(A11)의 목재 외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취한당’은 구연서원에 배향된 이후 오래지 않아 건축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신외범가옥의 건축도 비슷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그림 3>참조)

초기의 정착 이후, 약 50여년이 지난 제 2~3세대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황산마을은 약 7~8호의 주거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의 족보를 보면, 우선 입향조의 네 아들 중 후손이 살고 있는 장자(長子)와 삼자(三子)에 의한 두 집과 입양되어 23세 수검(守儉)의 뒤를 잇게 되는 차자(次子)의 집이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마을 입구의 전면을 형성하여 매우 가까이 담을 인접하여 주거영역을 형성한 것이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주거로 볼 수 있는 ‘취한당’의 구성은 전후의 배치를 가진 ㄷㄷ字形의 구성으로 전형적인 남부지방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된 A11의 경우도 ㄷㄷ字形으로, 이 마을의 초기에 형성된 규모 큰 주거가 ㄷㄷ字形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인 19세기 초반의 황산마을의 현황은 ㄷㄷ字形의 평면을 가진 2호의 기와집과 약 8호의 초가집이 어우러진 10호 가량의 소규모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볼 수 있다.

#### 4.2 황산마을 전통주거의 ‘조선 말기’(19C 후반) 특성

19C 후반의 황산마을은 인구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다. 가구 수는 대략 15~16가구가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주거지 영역을 거의 형성한 범위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타 씨족의 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독특한 예이지만, 인접한 황산마을 1

9) 이 도면은 선행연구(김세환, 居昌 黃山마을 傳統住居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경남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59)에서 인용하여 본 연구의 분류기호로 적용한 것이다.

10) 영암사곡백산재, 居昌愼氏 山亭公派譜, 광주광역시, 호남문화사, 1996, p.15

11) 황산마을 신외범(610-1번지) 고증



그림 3. 황산마을의 '조선 후기'(19C 전반) 배치추정도  
(실선은 현재 지적선, 짙은 담장선 안의 도면이 추정 건축)

구인 동촌에 많은 타 씨족이 이주해 주거의 팽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서촌 지역은 거창 신씨의 씨족 범위를 의도적으로 유지<sup>12)</sup>하여 반촌(班村)의 특성을 이루었으며, 타성들은 동촌으로 이주하여 민촌(民村)의 성격을 이루며 각각의 영역성이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먼저 형성된 하촌을 중심으로 와가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다. 막 형성되기 시작한 상촌지역에는 1호(A8)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와집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 말기'에 건축된 가옥은 4호로 파악되는데, 그 중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 입향조의 후손인 신용근가옥(B2)<sup>13)</sup>이며 나머지 3호(A7, A8, C3)는 거주하는 주민의 고증에 의한 추정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황산마을의 전경은 약 6호의 기와집과 10여 호의 초가집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반촌의 분위기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가계 구성을 보면 A계열이 6호, B계열이 2호, C계열이 8호 가량으로 후손에 의한 가계의 팽창은 C>A>B의 순으로 이루어졌다.(<그림 4>참조)

12) 황산마을에서는 거창신씨 이외의 씨족에게는 서촌의 땅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함. 신순범씨 고증.

13) 가옥의 대문체에 효자정려의 기록과 안채의 기록이 동일함.



그림 4. 황산마을의 '조선 말기'(19C 후반) 배치추정도  
(단선 지붕은 초가, 짙은 선 지붕은 와가)

배치는 대부분 소규모로 二字形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기와집의 평면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며, 초가집으로 분가하였을 경우 모두 二字形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촌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황산마을에서 최소한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조선 말기'의 특징은 인구의 증가로 인한 가구의 확장으로 현재와 가까운 필지의 구성이 이루어진 점과 대부분 二字形의 평면을 이루는 소규모의 채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주로 하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건축 활동이 이루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 4.3 황산마을 전통주거의 '근대기'(20C 전반) 특성

'근대기'인 20C 전반에 들어서 황산마을은 가장 건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1世 경영(景擘)의 후손(C계열)으로 19C까지의 약세를 극복하고 급속한 후손의 팽창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특히 상촌을 중심으로 기와집의 건축을 활발히 진행했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의 건축(C4, C6, C7)과, 1940년대의 건축(C8, C9, C10)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상촌이 이 시기에 기와집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그림 5>참조)



그림 5. 황산마을의 '근대기'(20C 전반) 배치추정도

평면의 특성은 이전까지의 ㄷ字形의 구성에서 벗어나, ㄱ자형의 안채형식을 사용한 C4 신위범가옥의 경우와 같이, 중부지방의 반가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주거의 구성이 지역성을 탈피하고 전국적 위상의 주거건축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근대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주거의 경우도 ㄷ字形의 배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C7, C8 등의 주거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주거의 규모가 커진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대기'의 특성은 북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건축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ㄷ字形 이상의 대규모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평면의 구성에 근대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거의 영역은 외부로 적극적인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 말기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4.4 황산마을 전통주거의 '현대기'(20C 후반) 특성

20C 후반의 황산마을은 건축적으로 안정기로 볼 수 있다. 가구의 증가는 소규모로 이루어져 마을의 영역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으며, A3와 같이 필지 내에서 소규모로 분할하여 건축하거나, A10과 같이 마을의 끝자락에 조금의 영역을 점유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영역확장만 이루어졌다. 반면 건축활동은 20C 전반기만큼 활동적이지는



그림 6. 황산마을의 '현대기'(20C 후반) 배치현황도

않지만,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5호의 재건축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 활동은 주로 하촌의 A3~A10 사이의 계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근대기'에 C계열에서 주로 이루어진 건축 활동과 대조되는 경향이다. 건축의 변화는 70년대까지 4호를 제외하고 모두 한식 기와집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4호 중 2호만 슬레이트집(초가구조)이고, 2호는 시멘트기와로 바꾼 것이어서 포괄적인 기와집으로 본다면, 황산마을은 2호를 제외하고 모두 기와집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6>참조)

이들의 건축 활동은 기존의 주거인 초가를 기와집으로 개축하는 경향을 띄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으며, 좁은 필지 내부에서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로 ㄷ字形의 형상을 이루는 유형이 많았다. 물론 평면의 유형은 20세기 후반의 특성을 반영하는 A6과 C5와 같이 입식 부역을 포함한 한양 절충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목조건축의 구성에서 벗어난 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많은 전통마을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주변과의 조화 및 전통문화 보존의 강력한 의지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마을의 대표적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장의 지속적인 건축과 보수는 한마



음으로 합일된 경관보존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현대기’의 건축적 특성은 영역의 확정기라 볼 수 있다. 주거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지 않고, 씨족의 범위로 한정하여, 다소 배타적이기도 하지만, 전통문화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이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평면은 전통적인 경향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배치나 구조는 전통을 유지하는 일관성을 명확히 찾을 수 있다. 또한 도시화의 과정에서도 6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후손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관리와 보존의 상태가 매우 우수한 살아있는 전통마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황산마을은 18C 중반에 거창 신씨 일가들이 정착한 마을이, 19C 전반에 씨족마을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19C 후반에는 인구와 가옥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20C 전반에는 기와집으로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20C 후반에는 대부분의 가옥이 기와집으로 개축되어 현황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황산마을은 거창 신씨 산정공파의 씨족이 세거해온 마을로,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구에 23가구가 살고 있는 곳이며, 농촌 주거의 환경개선 및 관광을 목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전통마을이다. 본 논문은 족보의 자료와 주민의 고증을 토대로 황산마을의 주거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분석하여 이러한 보존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황산마을은 18세기 중반 입향조와 비슷한 시기에 전입한 일가의 후손들이 250여 년 동안 씨족마을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다. 가계의 구성은 거창신씨 21세의 3계파로 나뉘는데, 21세 景昇의 후손(A계열)이 11호, 21세 景昞의 후손(B계열)이 2호, 21세 景曄의 후손(C계열)이 10호 거주하며, 景昇과 景昞의 후손은 주로 황산마을의 하촌(下村)에, 景曄의 후손은 주로 상촌(上村)에 거주한다.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건축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19C 전반의 ‘조선 후기’, 19C 후반의 ‘조선 말기’, 20C 전반의 ‘근대기’와 20C 후반의 ‘현대기’로 구분하면 황산마을의 형성과정에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후기’인 19C 전반에는 입향조의 주거를 중심으로 하촌에서 주로 주거가 형성되며, 하천변으로 발달하여 약 6~9호 정도의 소규모 주거가 형성되었다. 이 때 입향조가 구연서원에 배향되면서 종가의 사랑채가 기와집으로 건축되었다.

2. ‘조선 말기’인 19C 후반에는 가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마을의 터전이 거의 현재의 구성으로 자리 잡았고, 기와집의 건축은 주로 하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근대기’인 20C 초반에 이르러서는 초가를 기와집으로 바꾸는 건축행위가 일어났으며, 주거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근대적인 특성을 반영한 건축이 이루어졌고, 주로

상촌을 중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다.

4. ‘현대기’인 20C 후반에는 가구의 확장이 줄어들고, 영역이 안정화되었으며, 내부적으로 필지의 분할이 생겨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이루었으며, 2호를 제외하고 모두 기와집으로 건축이 이루어져 마을 전체가 기와집 집성촌을 이루는 경관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황산마을은 입향 이후 300여 년 동안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매우 밀도 높은 씨족마을을 이루면서, 주거의 영역을 한정하여 씨족만의 독자성을 형성하였고, 전체적 경관의 조화를 잘 유지해 온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황산마을은 단지 문화재적 가치로서의 ‘옛담장’만 아름다운 마을이 아니라, 전통 주거문화와 정주환경을 보존해온 주민의 의지도 매우 아름다운 마을로서 전통마을의 보존의 기준이 보다 포괄적으로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황산마을은 근대기의 특성을 대변하는 등 록문화재인 ‘옛담장’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 방향을 담장을 포함한 경관보존에 주된 보존방향을 설정하여 왔지만, 선행연구를 통하여 전통건축으로서의 가치가 밝혀진 바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마을의 발전과정상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역사 및 인문학적 가치가 또한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보다 많은 농촌마을의 역사적 의의가 연구된다면 전통마을로서 가치 있는 마을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앞으로 생활사적 가치를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진다면, 황산마을과 같은 농촌마을이 지역의 중심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1. 영암사곡백산재, 거창신씨 산정공파보(居昌愼氏 山亭公派譜), 호남문화사, 광주광역시, 1996
2. 거창군사편찬위원회, 居昌郡史, 거창군, 1997
3. 박명덕, 영남지방 동족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2
4. 김화봉, 풍산김씨마을 뜰집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안동 오미마을과 봉화 오록마을의 족보를 바탕으로-, 건축역사연구, 13권 3호, 2004
5. 김충열, 남명 조식의 문학과 선비정신, 예문서원, 서울, 2006
6. 김세환, 거창 황산마을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경남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